



전통수의학 처방의 이해 ⑥ 평위산(平胃散)

강무숙
동물제중원 금손이동물병원 원장
수의외과학 석사
camus22@hanmail.net



평위산은 송나라 시대 편찬된 태평혜민화제국방《太平惠民和劑局方》에 최초로 수록된 처방으로 창출, 진피, 후박, 감초, 생강, 대추 6가지 약재로 구성되어 건위소화제로써 소화기계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처방중의 하나이다.

평위산은 소화기능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어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어 급만성 위장염, 급성 소화불량증 등에 응용하는데, 위장 내에 정체된 수분으로 인하여 몸이 무겁고 구역, 트림, 상복부 팽만,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에 사용한다.

평위산의 효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습(濕)’이라는 한의 병리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습이라는 병리 개념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날씨가 습하다라고 하는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날씨가 습해서 짜증이 나지만, 이때의 습이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습하다라는 정도로 끝나지만, 이런 습한 기후가 병을 일으키면, 외습(外濕)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수분대사나 체액대사의 이상으로 인한 수분이나 체액 대사의 이상이나 이로 인한 액체성 병리물질의 정체를 말한다. 그래서 습사로 인한 발병에는 외습(外濕)과 내습(內濕)이 있다.

습기 많은 기후가 질병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때, 이것을 외습이라 하는데, 기후가 너무 습하거나 습한 환경에 오래 있는 경우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에 반해 내습은 비위(脾胃≒소화기)의 기능이상으로 인하여 섭취한 수분이나 몸안의 체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정체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는 기후에 의한 습사와는 구분된다.

외습에 의한 질환은 감기, 피부병 등이고, 내습에 의한 질환은 범위가 넓은데, 체액대사 이상으로 인한 질환이 거의 포함된다. 소화장애, 설사에서부터 부종, 소변이상, 관절염, 뇌척

수액 대사 이상까지도 습에 의한 문제라고 해석될 수 있다.

평위산은 주로 소화기계의 내습으로 인한 질환에 쓰이는데, 처방 중의 창출은 성질이 건조하므로 습(濕)을 없애주고 비장의 운화작용(運化作用≒소화작용)을 돕는다. 후박은 기를 소통하게 하고 습을 없애주며 배가 더부룩한 것을 해소시킨다. 진피는 보조약으로서 체한 것을 통하게 하고 담(痰)을 없애주고 감초는 모든 약재의 효능을 조화시켜준다.

처방으로서 평위산은 소화관 운동능을 강화하고, 세균성 장염에 항균작용을 하며 소화관 점막의 부종을 완화하여 구역과 구토를 개선하며, 위산과다증을 개선하여 속쓰림을 완화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한의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위산의 효능과 적응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평위산의 효능과 적응증

효능	조습운비(燥濕運脾), 행기화위(行氣和胃)
주치	비위(脾胃)의 습체(濕滯)로 인하여 완복창만(脘腹脹滿), 불사음식(不思飲食), 구담무미(口淡無味), 오심구토(惡心嘔吐), 애기탄산(口氣吞酸), 지체침중(肢體沉重), 권태기와(倦怠嗜臥), 대변자리(大便自利) 설태백니이후(舌苔白口而厚), 맥상은 완(緩)하다.

설명

- 습체(濕滯) : 습사의 정체
- 조습운비 : 습을 제거하고, 비(脾)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 행기화위 : 기 순환을 시키고 위장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
- 완복창만 : 완복은 복부, 창만은 팽만.
- 불사음식 : 음식을 먹지 않음.
- 구담무미 : 입맛이 없는 것.
- 오심 : 속이 미식거리거나 울렁거리는 것.
- 애기탄산 : 애기는 트림이 나오는 것. 탄산은 신물이 넘어오는 것.
- 지체침중 : 팔다리가 무거운 감각.
- 권태기와 : 무력감으로 움직이기 싫어하고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 대변자리 : 설사
- 설태백니이후 : 설태가 하얗고 끈적거리며 두터운 상태.
- 맥 완 : 맥이 정상보다 더디게 뛰는 것.

평위산은 이기(理氣≡기순환)와 화습(化濕≡습을 제거)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방향성으로 습을 제거하는 창출과 후박, 진피, 생강, 대추, 감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출, 후박, 진피가 주된 효능을 나타내는 약이다. 어느 것이나 방향성 때문에 식욕을 돋군다. 창출은 소화관뿐만 아니라 조직중의 수분도 배설시킨다. 후박은 경련을 완화하고 유동운동을 조정하여 장내 가스를 배출하고 창출과 협동해서 설사를 멎게 한다. 진피는 진토작용이 있으며 후박과 함께 연동운동을 촉진한다. 생강과 대추는 소화흡수를 도우며 위장기능을 조절한다. 감초는 배합되는 다른 약의 효능과 성질을 조화시킨다. 이상과 같이 위장기능을 조정, 잉여의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습곤비위(濕困脾胃)의 증후를 개선하는 것이다.

- 지금까지 밝혀진 평위산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로는
- ①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가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모델에서 적혈구 면역반응과 면역 관련인자를 증가시켜 면역반응을 활성화시켰으며, 염증 및 통증/경련 모델에서 항염증 및 진통/항경련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 ②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랫드의 강제 유영을 통한 운동부하 조건에서 체액 내 항이노호르몬(ADH), 알도스테론(aldosterone), Na⁺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또한 K⁺ 배출 역시 감소시켰다.
 - ③ 순환기 계통의 질환 : 일반 랫드에 있어서 혈압을 상승시켰고, 울혈성 심부전 모델의 랫드에 대해서는 혈압상승을 유도하는 알도스테론(aldosterone)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켰다.
 - ④ 소화기 계통의 질환 : 위장관 운동조절, 점액 분비량 조절 및 위장점막손상 회복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평위산을 이용한 임상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2. 평위산 적용 질환과 임상연구

질환군	질 환
소화기계통의 질환	소화불량증, 기능성 소화불량, 위장염
피부 및 피부밀조직의 질환	아토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수술후 위장기능 회복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증례보고	클로자핀 부작용

평위산에 대한 독성연구에서 랫드의 단회 경구투여시 2000mg/kg 용량까지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사망 및 일반

증상의 변화가 없어 개략의 치사량은 2000mg/kg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전독성 검사에서는 사용한 미생물 5개 균주에 대해서 최고 농도 5000ug/plate에 이르는 범위에서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생체 내에서는 최고용량인 2000mg/kg까지 생쥐의 골수세포에 소핵을 유발하지 않았다.

기존 연구내용을 종합해보면, 평위산은 소화기계 질환에 주로 쓰이는데 주로 급만성 위장염과 소화불량증에 응용되는데, 전통수의학에서도 역시 소나 돼지의 식욕절폐, 위산중독, 소화장애, 설사 등에 주로 응용되어 왔다.

소동물에서도 역시 급만성 위장염과 설사 등에 응용할 수 있는데, 평위산을 적용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할 증상은 갑작스런 식욕저하, 구토, 설사, 이급후중 등이다.

만성적인 식욕저하보다는 과식이나 폭식이후의 갑작스런 식욕저하여야 하고, 묽은 설사에 더 어울리는 처방으로 보통 설사를 하기전에 이급후중이나 복통 때문에 짚는 경우에 쓴다.

평위산은 보약개념의 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고, 평위산을 복용하고서 식욕저하, 구토, 설사 등이 없다면 복용을 중지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국윤범외. 방제학. 서울: 영림사, 2009:78-9
- 한국한의학 연구원. 표준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 p.73-109, 2013
- 한국한의학 연구원. 표준한방처방 의약품 정보 2013, p.73-109, 2013